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라니!

김도연

학교 화상 수업 시간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토론하는 영상을 보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설립 자리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반대편 주민은 그 자리에 국립 한방 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기피시설은 많다고 특수학교 설립을 꺼려했다.

국립 한방 병원이 특수학교보다 효율성이 좋다니. 물론 경제성 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학교 주변의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다. 등, 하교 할 때 준비물이나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병원과 특수학교를 똑같은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병원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권에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학교는 기본권 중에 교육권이라는 것이 있으며 의무 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하지만 병원은 언제든지 가도 돈을 내야한다. 그러므로 나는 특수학교와 병원을 비교할 수 없으며 당연히 특수학교를 지어야 하고 국가에서 그 쪽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누구나 잠시 ‘아차’ 하는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로만 보아왔던 일이 나한테도 내 가족도, 내 주변사람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편견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 이라는 낱말도 우리가 만든 것이다. 사실 암 환자도 다르게 불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린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왜 장애인이 기피해야 할 대상이며, 특수학교가 기피해야 할 장소인지 궁금하다. 사실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뿐인데 말이다. 우린 단지 평등이 아닌 공평하게만 해주면 된다. 즉, 키가 작은 아이와 키가 큰 사람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어깨에 올려,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럼.

찬성 편 주민 중 장애아 부모는 “우리 아이들은 왜 가까운 학교에 못 가나요?”, “학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의 기본권(교육권)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반대편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찬성 편 주민은 무릎을 꿇었고 회의는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노란색 점자 보도블록이 미관상 좋지 않아 회색 점자 보도블록으로 바뀐 기사, 백인에게만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야기 등이 떠올랐다. 헌법으로 제정된 것들이 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미를 위해 무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했다.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니, 6년 2개월 뒤에 ‘서울 서진학교’ 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 보통 학교가 설립되는 시간은 3년인데 두 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학교에서는 누구나 심지어 범죄자들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교육하며 서로에게 행동이 아니더라도 말로만 언어폭력을 하면 혼이 나고 심하면 학교 폭력 위원회까지 열린다. 게다가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전학을 가도록 하거나 특정한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며 학교를 쉬라고 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건들을 보았을 때 어른들은 행동으로만 했을 때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들어간다. 확실히 특수학교를 기피시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언어폭력이다. 심지어 아무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으며 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사과를 해달라고, 사과문을 써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동안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사례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어폭력을 한다. 그렇다면, 어른들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영상을 보고 이 글을 쓰며, 앞으로 편견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장애인도 분명히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